"이젠 예금보다 주식"… 8000피가 바꾼 韓 자산배분 공식

❷ 투자가 '미덕' 된 시대

정기예금 1억 이하 계좌 6년 새 최저
예금·현금 비율 40%선 붕괴 가능성
코스피 8000선 넘으며 흐름 뚜렷

투자자 예탁금 사상 첫 130조 돌파
신용융자 잔고 36조2548억으로 늘어

"주식하면 패가망신"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말이다. 목돈은 은행 예금에 묻어두는 것이 미덕이었고, 은행에만 돈을 맡기는 '예금 바보'라는 말까지 나왔던 나라다. 그랬던 한국 투자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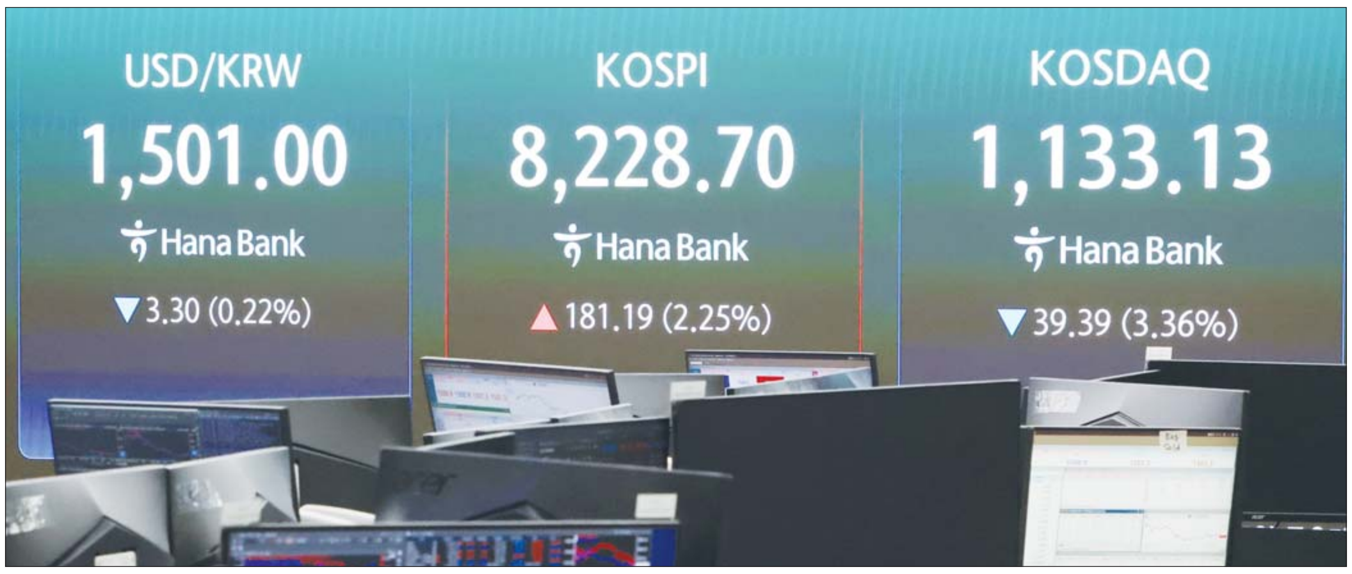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예금·현금 비중이 지난해 43%로 떨어졌다. 이대로면 올해 안에 40%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저축 중심이던 한국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시절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만히 두면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선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사실상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특히 코스피가 8000을 넘어 1만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투자가 미덕'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 예금에서 증시로…시중자금과 빚투가 동시에 몰린다

'불장'에 증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잔액 1억원 이하 계좌 수는 2162만 9000좌로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예금 총액도 299조 70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예금에서 빠져나와 주식 등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45%대 중반에서 2024년 46% 안팎까지 상승하며 정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불장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엔 약 43% 수준으로 내려오며 감소 전환했다. 불과 1년 사이 3% 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40%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8047.51)보다 181.19포인트(2.25%) 오른 8228.7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72.52)보다 39.39포인트(3.36%) 내린 1133.1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04.3원)보다 3.1원 내린 1501.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신용융자 잔액 50대 이상 비중 62%
은퇴 자금·예금성 자금까지 유입

0~9세 계좌개설, 4개월 새 2배↑
미성년자 계좌 평균 잔액 1000만원

지난 3월 통화량이 단기 금융상품과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18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13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5000억원(0.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불어나며 머니마켓펀드(MMF)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코스피 7000선에 이어 8000선을 넘어서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가 7000선을 기록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식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첫 130조원(130조7433억원)을 넘어섰다. 사상 첫 8000선(종가 기준)을 찍은 26일에도 124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인 신용융자 잔고는 같은 날 36조2548억원으로 불어났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지난 21일 기준 41조2822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 주식투자가 '미덕'인 시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자영업자 김춘자씨(65)는 올해 초 강세장을 맞아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섰다. 5년 전 부동산을 팔고 남은 돈 2억원으로 2차전지 급등주와 코스닥 소형주에 올라탔다가 50%가량 손실을 봤던 아픔이 있어 이번 강세장에는 우량주에만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반도체, 조선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그동안 봤던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다. 김씨는 가게 장사가 언제까지 잘될 것이란 보장이 없어 앞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불장이 이어지면서 가계 부를 늘리는 공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노년층부터 부모가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미성년자 자녀들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 시대를 맞아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투자자들은 환영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신용융자 잔액 약 27조2000억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62.3%에 달했다. 50대 잔액은 8조9762억원(32.9%), 60대 이상은 8조189억원(29.4%)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은퇴자금과 예금성 자금까지 상승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도 주식시장의 참가자가 됐다.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은 올해 1월 대비 119.2%에 달했다. 불과 4개월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30대(352.6%)와 20대(308.4%), 40대(220.8%)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01.1%였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잔액은 약 10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력제품 '알리글로' 파이프라인 고도화

>> 1면 'GC녹십자, 美…'서 계속

글로벌 임상 2상에서 기존 대상포진 백신인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와 직접 비교한 결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을 나타냈다. 또 피로·오한·통증 등 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내약성이 입증됐다. 글로벌 임상 3상 진입 및 상업화를 위한 최적 용량 확정 단계에 진입해 있다.

아울러 GC녹십자는 이번 매각으로 거둔 대규모 자금을 피하주사형 면역글로불린(SCIG), 프리미엄 백신, 혁신 희귀의약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GC녹십자는 주력 제품 '알리글로'의 후속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분류되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2024년 7월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는 피하주사제형 전환으로 혁신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뇌실 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 등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다. 백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인 '배리트락스주' 등을 국산 신약으로 내놓는 등 백신 자급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